

Jtbc 16부작 미니시리즈

# <멜로가 체질> (가제)

극 본	이 병 헌 & 김 영 영
연 출	이 병 헌
제 작	삼화네트웍스

- \* 극 본 : 이 병 헌, 김 영 영
- \* 연 출 : 이 병 헌
- \* 형 식 : 70분물 16부작
- \* 제 작 : 삼화네트웍스
- \* 방 송 : Jtbc
- \* 장 르 : 서른 살 처녀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 \* 주요 등장인물

임진주 (30세, 여) 드라마 작가 / 복잡, 아주 복잡. 감정기복 활발함.

비정상이 정상인 곳에서 살고 싶다. 언뜻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임을 정상으로 여기며 세상 정상으로 살고자 하지만 정작 뭐든 간에 1센티만큼씩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여자. 이를테면 작가답지 않게 꾸미고 다닌다거나.

“부스스~하고, 일어날 때 허리 붙잡고 애구구구~ 하고, 무릎 늘어난 츄리닝에 삼선 쓰레빠 질질 끌고 나가 컵라면 사다가 뽕개 먹어야. 그래야 작가 같죠? 그래서 안 그러려고.”

작가를 꿈꾸면서도 문어체를 쓰지 못한다거나.

“난.. 난 귀여니 소설이 순수문학이라 생각하고 자랐어.”

‘방으로 재빨리 도망가 버리는..’이라고 표현하면 쉬운 거잖아? 편하잖아?

‘방으로 숨...? 방으로 숨?’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너 작가야? 라고 말하는 메인 작가에게 항변했죠.

“방으로 숨. 하고 읽는 사람이 어딴어요? 방으로 슈웅~! 하고 읽지.  
그럼 재빨리 도망간단 표현이 되죠. 훨씬 쉬운 거잖아요? 편하잖아요?”

“아니.. 숨...”

“숨. 아니고 슈우웅~!”

“그래 슈.. 슈웅!! 근데 이진.. 뭐랄까.. 숨은 좀 그래. 우린 작가잖아? 이게.. 숨..  
최소한 이해는 되게 써야지. 숨이 뭐야?”

“아니 방으로 슈웅 하면 숨 들어가지 숨 얹드리겠어요? 이거 다 알아듣는데?

그것도 아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작가님은 여기 ‘강박하게’라고 쓰셨죠?

강박? 강박이란 단어를 요즘에 누가 써요?”

“요즘 애들이 안 쓰면 안 쓰는 게 작가니? 우리말 나들이 부정하는 거야?

국어 파괴에 동참하는 게 작가의 길이냐고? 니가 작가야?!”

“행동지문이잖아요! 이거 서점에 내다 팔 거면 나도 숨! 안하고 강박.. 아 발음도 안 돼.  
아 뭐 그런 단어 쓰죠. 근데 이진 스탬플 배우들이 이해하기 쉬우면 되는 거잖아요?!”

“말대꾸 하지 마! 제대로 써! 이딴 거 하지 마! 이렇게 쓰지 말라고!”

사실.. 그렇게밖엔 써지질 않아요.. 뭐 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못 써요. 쓸 수 있는데 못 써요. 그게 뭐냐면 제대로 쓰려면 엄청난 집중을 해야 하고, 그럼 기운이 금방 빠져요. 금방 지치죠. 근데 우린 드라마 작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글 노동을 하기 위해선 비축이란 게 필요해요, 체력 비축. 그럼 작가로써 자질이 없는 거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방으로 숨- 이라고 쓰면 안 돼? 다 알아 듣잖아? 난 이렇게 써야 써진다고 글이. 그럼 작가 하지 말라고? 그건 싫어. 하지만 나가래요. 필요 없다고 나가래요. 저 스타 작가인지 늙은 작가인지. 저님이. 싫다고 버텼더니 그럼 자기가 나간대요. 그래서 현관 앞에 드러누웠죠.

“못 나가요! 못 가십니다! 가시려거든! 저를 두려웁주세요! 사뿐히 두려웁주세요!!”

사뿐.

지려봤혔어요. 전 또 다시 백수가 되었답니다. 아 연애는 별로 관심 업쓰요. 이 바닥엔 다양한 부류의 남자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 잘난 맛에 사는 넘사벽 스타 혹은 스타인 줄 아는 부자 혹은 그 부역자. 또, 지 잘난 맛을 본적도 없이 좀비가 되어 노동법이 뭔지도 모르고 일하는 노역자. 병신&덜 병신. 네. 둘 다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 사치. 명품. 그런 거요. 아 가난한 사람은 사치 좀 좋아하면 안 되나요? 된장녀라고? #어쩌라고#된장엔#차돌박이

황한주 (30세, 여) 드라마 제작사 마케팅 팀장 / 여림. 겁 많음. 워킹 맘.

오호호호호호.

오늘도 웃어요. 가식으로 보여도 웃어야 해요. 저는 약자거든요.

드라마에 피피엘 한 번 넣으려면, 저기 드라마 연출님한테 가서 이렇게 웃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 물론 대부분의 감독님들은 웃는 얼굴에 침 뱉으세요. 그런 거죠 뭐. 그래도 저는요.

오호호호호호.

침 뱉는 얼굴에 웃어요. 역시 침 한 번 맛고 나니까~ 찍어 주신다네요~~

응? 근데.. 저기 한류스타 배우님이 오늘의 피피엘 치킨을 드시지 않겠단데요.

아침 일곱 시 반. 제가 저 치킨을 어떻게 구해왔게요? 치킨 본사에 전화해서 근처 대리점으로 뛰어가 셔터 올리고 겨우 시간 맞춰 튀겨 온 거예요. 네, 출근 시간이라 뛰었죠. 인국이 낳은 이후로 자꾸 뼈에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인데.. 네, 바람 맞으며 아니고 바람 흡수하며 뛰었어요. 전 너털너털해졌죠. 응? 근데 우리 스타님께서 아침부터 치킨은 부대끼다며 안 드신데요.

“오호호호호호. 저기 사랑하는 배우님.. 치킨 한 번만 드셔주시면 안돼요?”

“아, 모르셨구나? 제가 어제 밤샘 촬영하고 다시 아침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저 건들면 촬영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려고요. 치킨, 촬영,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난 치킨.

오호호호호. 차에서 밤새 처자는 거 봤는데.. 진짜 뭐하나 잊을 기세네요.

네. 피피엘 날리고 회사에 욱바가지로 먹었더니..

아~~ 오늘은 배불러서 밥 안 먹어도 되겠어요.

오호호호호.

그래도 난 버팁니다. 난, 엄마니까. 우리 인국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초딩1년 우리 인국이. 왜 드라마 같은데서 보면 아빠 없이 자란 철 일찍 든 아이가 일하고 들어 온 엄마의 어깨를 도닥이며 위로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오호호호..

그런 아이는 드라마에나 있어요~~

저 새끼.. 정말 힘들어.

“사쥬!! 사쥬!! 죽어도 사쥬!! 터닝메카드 사쥬!!!”

“터닝메카드를 종류별로 다 가질 셈이야?! 어떻게 그걸 다 갖니?!! 우린 넉넉하지 않아! 갖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버틸 수 있다고!! 이 험난한 세상에! 고작 터닝메카드로 엄말 힘들게 해야겠어?!! 터닝메카드는 카드를 밟으면 로봇으로 변신하지만! 엄만 카드 값을 내지 못하면

낙오자로 변신 해! 그럼 널 키우지 못한다고!!

우린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살지 못해!!”

“난 아빠가 없잖아!!!”

네. 저는 사줍니다.

어찌겠어요. 아빠 없이 터닝메카드도 없으면 기죽는다는데.. 아. 애 아빠요? 이혼했는데요.

개그맨이에요. 나를 웃기겠다고 아예 개그맨이 되어버린.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혼자 다하는 멀티 플레이어. 세상 꼴 보기 싫은 인간인데.. 아빠라고 찾기 시작하니..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술 담배도 안 하네요.

후... 네. 그래도 저는 버팁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이은정 (30세, 여) 다큐멘터리 감독 / 페미니스트. 졸부. 이성적.**

다큐멘터리 제작팀 조수로 들어갔어. 나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지. 배우자. 좋은 기회잖아. 면접 첫 인사가 “예쁘게 생겼네?”였어. 참자. 면접 첫 질문이 “피부 관리 하나 봐?”였어. 참자. 면접 첫 평가가 “하긴 어리니까 피부가 좋지.”였어. 참자. 여자가 버티기 힘든 곳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어. 버티자.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회식이 있었어. 술을 강요하길래. 안 먹었어. 안 먹고 버티니까 “아 그럼 나 운전해주면 되겠다.”하면서 팔뚝을 쓰다듬더라. 참자. 버티자. 운전까지 해줬어. 집 앞까지 모셔드렸지. 근데 이 사회적으로 덕망 있으신 감독님께서 나를 지긋이 바라보더니 그러더라.

“오빠라고 해볼래?”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게 이기는 거야.

“뭐 이 개새끼야?”

개새끼 밑에서 뭘 배워. 개 짖는 소리나 배우지. 배울 곳 찾지도 마. 없어. 바로 독립했어. 내가 나의 이야기. 내가. 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내 힘으로 한다. 남자 새끼들.. 개새끼들..

“지지 않아 주마.”

근데 말이지. 남자 새끼들 죄다 건의 후손으로 보일 때. 그때. 모순이야. 저 녀석이 좋아. 친일파 후손들의 인터뷰를 기획했는데. 당연히 다 뺀지 먹었지. 근데 흔쾌히 허락해주는 녀석이 있는 거야. 나름 재벌 3세인데. 작은 1인 식당을 운영하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의 그 녀석. 난 녀석의 도움으로 극장 개봉용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 그리고 말이지. 300만 관객이라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며 졸부가 되었지. 나의 변화에도 변함없는 녀석과 난 이미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우린 매일 함께했어. 매일 아침 계란에 야채를 잘게 썰어 넣어 부쳐 먹을까 프레인 요구르트에 베리류를 얹어 먹을까 고민하는 나에게 라면을 끓여 주는 쿨가이. 이런 저런 얘기도 해주고 들어주고 그런 녀석이 난 너무 좋았어. 뽀뽀가 절로 나왔어.

“먹다 말고 미안한데. 뽀뽀 좀 해도 돼?”

“먹어. 먹어. 내가 할게.”

덕분에 매일 아침 우릴 지켜봐야 했던 동생 녀석은 꽤 오랫동안 손가락의 하나됨과 욕지기를 견뎌내야만 했어. 우린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말이지. 어느 날. 죽었어. 그 녀석이. 죽었어. 죽음은 그냥 와. 전조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와. 그리고 남겨진 자는 죽음보다 아픈 고통을 견뎌야 하지. 난. 자살을 시도했어. 그것도 쉽지 않더군. 결국 동생과 친구들이 돌아가며 돌보기라는 이름의 감시를 시작했고. 그러다 자연스레 우린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 황한주 저년은 애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 저건 욕아를 분담하려는 계획적인 행동 같아. 또 그러던 어느 날. 난 또 자살 충동을 느꼈어. 근데 말이지. 그때. 그 녀석이 나타났어. 죽은 그 녀석. 아. 이건 환영이구나. 죽지말래. 죽지 말아달래. 그래서 안 죽기로 했어. 그 대신. 부탁했어. 이렇게 날 매일 찾아와 달라고. 계란을 먹을지 요구르트를 먹을지 내 고민을 가지고 뭐라 말해줘. 아무 말이나. 녀석은 역시 내 부탁을 들어줬고. 그렇게 난. 보통의 사람 눈엔 허공을 바라보고 공기와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지. 주변 사람들은 익숙해해. 그리고 그게 여러모로 낫다고 여기고 있어. 아 이제 돈도 떨어져간다. 뭔가 일을 해야 하긴 하는데 의욕이란 게 쉽게 돌아오질 않네. 꾸역꾸역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스텝을 꾸리는 데 조감독 녀석이. 독특하네. 그리고. 친일파 집안이라. 자기야, 자기랑 같은 친일파야. 인사해.

**홍대 (33세, 남) 전 재벌 3세, 전 셰프, 현 영혼 / 영혼**

위에 이은정이 말한 그 자기. 그 녀석입니다.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네 없는 사람입죠. 이은정의 환상 속에만 있습니다. 로맨틱한 성격인데 영혼입니다. 잘생겼는데 영혼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범수 (35세, 남) 드라마 피디 / 겉으로 모든 걸 갖춘... 찌질이.**

정석. 정석만이 살 길이야. 그래서 살아남았어. 여기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드라마. 근데 말이야. 언제부턴가. #노잼#핵노잼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겠어. 찾아보니 성공한 드라마였지만 안티도 많아. 대부분 트잉여들의 비난. 뽕은 얘기. 뽕은 연출. 새로운 거 하나도

없음. 나 욱. 많이. 먹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글이 안 보이기. 아니 정확히 안 읽히기 시작했어. 저 노땅 작가들. 하나 같이 똑같은 대사들을 생산. 아니 배설하고 있어. 아예 안 읽혀. 그러다 인스타그램에 빠졌어. 그건 읽혀. #그게바로#인스타그램중독의길 그러다 우연히 임진주의 글을 봤어. 스타 작가라고 하는 저 배설자의 작업실에서 빈 책상 위 아무렇게나 던져진 프린트 된 대본을 봤어. 어? 읽혀. 그래서 그냥 한 번 만나 봤어.

“임진주 작가님. 왜 글을 이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선 귀에 딱쟁이무덤 생길 만큼 많이 들었고,  
그걸 못 고쳐먹어서 입봉 못하고 보조로 전전하다가 이제 그마저도 팔려서,  
프리티 쪽으로의 귀환을 선포한 전직 작가지망생이니까,  
그 뒷말은 예상 가능해서 사양할게요.”

란다.. 신인작가라면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을 텐데? 이렇게 잘 안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여자 아주 조금이지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까칠하기도 하고 하니 그냥 지나가려 했으나.. 이 여자 글은 읽힌단 말이야. 심지어 재밌단 말이야.

“나는 하루 24시간 드라마만 생각합니다. 아실 거예요, 하나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꿈에서도 그것만 나타나는 거. 그러다 잠시 꿈에서 깨도 꿈에 보았던 걸 메모하는데 그 짧은 시간마저 활용합니다. 심지어 잠도 안자요. 주말에만 자요.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 전부를 드라마를 생각하는 데 소비합니다. 임진주 작가님은 드라마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열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 열정이야 열정페이에 맞춰져 있는 신세라.. 근데요.. 아니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똑같이 찍으셨어요? 식상함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죄다? 아니..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

#안\_해 #저임진주작가님과 #일\_안\_해.

근데. 저 사람. 임진주. 작가님. 가난한 주제에 사치스럽다고 누가 뒷담화를 까는데.  
그냥. 임진주 작가님이. 좋은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냥.  
누가 저 임진주. 작가님. 욱하는 건 또 싫으네. 좋아하는 거 아니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사람은 낭비가 심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유흥을 좋아하고, 비싼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모르시는 게 있으십니다. 난 그런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고양이 같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내가 그 고양이의 주인이 되고 싶단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주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난 손에 잘 잡히는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다. 뭐 귀엽진 않더라도 충직한. 그 사람의 강아지.. 월월.

자, 내 앞에서 그 여인의 뒷담화 까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못 들겠네요.”

“이제 저쪽 가서서 제 뒷담화를 까십시오. 저 사람들이라면 잘 받아줄 겁니다.  
날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좋아하는 건 아니야. 아니라고.

효봉 (28세, 남) 작곡가. 프로듀서 / 감성 게이. 온순.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아. 나. 남자 좋아하는구나. 힘들었지만 받아들였죠.  
가족에게도 숨기며 살았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누나에겐 말하고 싶었어요.  
감추고 사는 거 그거 참 고독하고 쓸쓸한 일이잖아요. 고백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바가지 쏟아졌어요. 누나는 날 와락 안아줬어요.

“이 새끼.. 새끼라고 해도 되니? 이 새끼야.. 왜 숨겼어! 왜! 28년이나!!”

“고등학교 때 알았으니까 10년 정도야.”

“아무튼 새끼야!!! 이 바보... 근데 있잖아... 미안한데... 흑... 우리 둘만 알자. 응? 아직  
대한민국은 말이야.. 성소수자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곳이잖아.. 교회 가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연설 까는 정치인이 버젓이 표를 받고 있는 나라. 응? 누나 이해하지? 아직은 아니야. 우리  
둘만. 응? 외롭게 하지 않을게. 우리 둘만 알자. 세상 우리 둘만!”

이해하죠. 문제는.. 저 어둠 뒤에.. 언제부턴가 누나 친구들이 있었네요.  
진주 누나. 한주 누나. 하하하.

“우리 넷! 우리 넷만 아는 거야!”

음.. 한주 누나 아들 8살 인국이도.. 있네요..

“우리 다섯!! 우리 다섯 만 아는 거야!!”

모르겠어요. 우리 다섯 만 아는 건데.. 뭔가.. 세상이 다 아는 거 같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기분은 어떤 거야? 누나 친구 진주누나가 묻더군요.

“똑같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랑 똑같아.”

똑같은 건 어떻게 아냐고 묻더군요. 여자를 사랑해본 적 있냐며.

“똑같...”

왜.. 왜 갑자기.. 왜 우냐고 묻더군요. 씨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조지 마이클이 죽어서.”

그.. 재작년에 죽었는데?  
씨팔 할 말이 없다고.

“어제는 장국영이 죽어서 울었어. 2003년에 죽었지.”

어.. 근데 조지 마이클이랑 장국영이 게이냐고 묻네요.

“난 게이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한 거야.  
누나 공유 좋아하지? 게이가 아니라서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근데 이 누나들.. 그때부터 나한테 너무 많은 걸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하네요. 피곤하리만큼. 네, 졸지에 고민 상담 잘해주는 친절한 게이친구가 됐어요.

**추재훈 (27세, 남) 한주의 직장 후배 / 잘생김. 온순하고 여림.**

평범하게 자랐어요. 큰 욕심 없이. 친구들과 주먹다짐 한 번 해본 적 없는 게 오히려 다르다면 다를까? 집이 시골인 탓에 고졸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해서인지 요리도 조금 하고. 대학 4년. 군대 2년. 취준 기간 없이 입사. 한 번의 이직. 큰 문제없는 그럭저럭한 인생이었죠.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첫 번째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였죠. 너무 사랑했지만 사귀지 두 달 만에 양다리였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엥? 말이 좀 이상하죠? 그녀는 절 선택하고 싶다고 했고. 전 그녀를 다신 누구와도 나누기 싫어서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고맙게도 제게로 와주었죠. 하지만.. 그녀는 남자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술도 좋아하고.. 취업 준비는 안하고 저래도 될까? 잔소리라도 하는 날엔.. 술을 더 먹어요. 그리고 우네요. 그러더니 따귀를 때려요. 그래서요? 안아줬죠. 안고 있으면 세상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녀는 클럽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나와 조금 더 있어주면 안 될까? 잔소리라도 하는 날엔.. 외박을 해요. 그리고 우네요. 그러더니 안겨요. 그날은 안아주기 싫어 피했어요. 그리고 헤어져 달라고 말했죠. 그날 저희 집 살림은.. 모두 부서졌습니다. TV는 아직도 못 바꿨어요. 그래서요? 안아줬죠. 안고 있으면 세상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한주 선배를 만났어요. 나와 함께 사는 그녀와 모든 게 반대예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지금 힘든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일까요? 요즘 저의 마음속엔 그녀보다.. 그녀가.. 더 커지려는 것 같아 두렵네요. 이 마음이.. 그 사람과 달라서이기 때문일까 봐.. 조심하게 되요.

**이소민 (30세, 여) 배우 / 스타. 대스타. 우주대스타. 인 줄 알지만 하향세.**

여자 사람 배우라고 하면 왠지 까다롭고 도도하고 가식적인 미소 뒤에 탈세를 숨기고 살 것만 같지? 맞아 내가 그래. 저년들은, 아 진주한주은정 저년들. 엉덩이 큰 공주들이라고 엉큰공? 지랄들 하고 있네. 저 엉큰공 년들은 내가 뜨고 나니까 변했다고 싫어해. 분명 말하는



데. 난 대학 때부터 꾸준히 재수 없었어. 아니 니들이 몰랐던 영유아초딩고딩 시절 모두 단 한 순간도 재수 없지 아니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썩었더니 저년들도 썩었네. 그러든지. 그리고 수 년 동안 본적도 없었어. 근데 진주년이 몇 년 만에 드라마 한답시고 캐스팅하러 찾아왔네? 그래서 말했지.

“누구...?”

가네. 자존심 남아있는 년. 자존심. 세워봐라 이년아. 가난이 널 벗어나나. 뭐? 요즘 작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화해의 차원에서 찾아와 본거라고? 미친년. 지랄을 벋 삼고. 개소리 훈민정음 삼으시네. 꺼져. 음.. 근데 말이야. 피디가 손범수야? 그래 사실 나 저 인간 짹사랑 했어. 후후. 그래서 한다고 한 건데. 아. 이 놈이 진주 년을 좋아한다네? 음. 그렇구나.

“더 좋아해줄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줄게. 니가 절대 평생 후회할 만큼!  
니가 날 싫어하는 거 보다!! 니가 저 년을 좋아하는 거!! 그걸 용서 못해!!”

음.. 근데 말이야. 은정이 년 동생 효봉이. 잘 컸네. 더 예뻐졌어. 그래 사실 나 저 인간 짹사랑 했었어. 후후. 그래도 아직 내 사랑은 좌석이 많아. VIP석. 아. 그런데 이놈이 남자 놈을 좋아한다네? 그럼 내가 짹사랑 하던 때도 그랬던 거야? 음. 그렇구나.

“야 이 개새끼야!!!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줄게!! 니가 날 싫어하는 거 보다!  
니가 사내놈을 좋아하는 거! 그걸 용서 못해!!”

아. 쌍. 외로워.

**이민준 (30세 남) 소민의 매니저 / 촌데레**

소민이가 외로운 게 싫습니다. 연예인의 연예인이 되어 주고 싶은데..  
저는 그냥 배우 운전이나 해주는 뭐.. 매니저니까 그냥 맞춰주거나 하는데..  
소민이 성질이 더럽습니다.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아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창인데..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둘까 하다가.. 내가 아니면 저거 맞춰 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러다 해코지 당할까봐 싫어 제가 참고 일합니다.  
가끔.. 아니 자주. 아무 말 안하고 있으면 소민이가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너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해?”

아무 말도 안했는데... 말 걸어달라는 겁니다. 뭐 계속 보니까 귀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은 세월이 5년.. 저의 그 고생을 대표님께서 알아주신 걸까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본부장으로 승진 기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 아니네요. 타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 사실을 소민이도 알게 됐고... 꺼지라네요. 정 없는 년....  
미쳤냐.. 내가 널 두고 가게. 평생 운전을 하고 말지.

김환동 (30세, 남) 범수의 조감독, 진주의 구남친 / 괜히 너무 예의바름. 괜히 너무 논리적임.

진주와 7년을 만났습니다.

그녀와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만나는 7년 중에 5년이 전쟁 같았어.”

그래도 2년은 행복했군..

“2년은 군대.”

군 복무 기간에만 전쟁이 없었다면 보통의 군인에겐 참 좋은 일이었을 텐데요..

저는 가난했고. 적당히 소심했으며 미래가 불안한 취준생이라면 대개 그렇듯 자존감도 낮은 20대를 보냈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한 여자와 보냈습니다. 잘해주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많이 싸운 걸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항상 제 질문에 질문으로만 답 할까요?

“니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좋아, 질문엔 질문이 아닌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을 해야지.

“그래 예를 들어 니가 3년 전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밤 12시 반 경부터 연락이 두절 됐을 때. 분명 니가 잘못된 거잖아. 너가 혼날 일인데 왜 그때 싸움이 났을까? 니가 자기변명의 당위성을 찾으려고 상대방의 지난 잘못을 끄집어냈기 때문이지. 너는 이랬잖아? 식으로. 거기서부터 싸움인 거야. 상대방은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를 받고 싶는데 그거 좀 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데. 넌 그걸 하지 못했지.”

정말 완벽한 논리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논리가 맞는 게 문제야.”

어려운데?

“난 남자친구를 원하지 교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 지금 니가 원하는 걸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이거! 이게 문제라고 병신아!”

끝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논리가 맞는 게 문제라니.. 우린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방구를 뼐 걸까요?

그런 그녀를 조감독의 입장에서 작가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좀 미웠지만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네요.

정혜정 (43세, 여) / 노처녀 스타 작가 / 예민.

노처녀는 결혼보다 테러당할 확률이 더 높다지?  
이젠 아예 결혼 확률은 제로고 테러는 삶의 일부가 되었어.

“대사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데, 왜 대사가 안 써지신다고 엄살 부리세요?”

영화 대사니까 개새끼야.

로맨틱 홀리데이에 나온 대산데, 그땐 이 대사가 와 닿지 않았어. 난 노처녀가 아니었고, 대한민국은 나름 테러안전 국가였으니까. 근데 지금의 난.. 이제 난 이 대사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입장이야.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회가 제멋대로 규정한 범위 안에서의 명확한 노처녀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안전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말인데, 난 굉장히 예민해. 예민할 거야. 아무도 못 막아. 난 내 맘대로 앞으로 짚욱 당당하게 예민할 거야! 내 말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대꾸? 좋은 쪽으로도 하지 마. 그냥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내 대사가 진부하다고!!!! 내 이름 없이 편성 받을 수 있어, 없어?!! 그게 진부한 거야? 아니 위대한 거지!! 존경해! 날 존경하라고!!!

“습.. 대사 좋은데.. 왜 쓰지는 못할까..”

성인종 (40세, 남) 드라마 피디 / 개새끼

위에 “습.. 대사 좋은데.. 왜 쓰지는 못할까...” 한 놈이 나야.

저 늙은 작가가 난 필요해. 편성 잘 받고. 식사하고 진부하고 막 그런데. 시청률은 또 잘 나오거든. 후지게 잘 쓴다고. 그냥 막장으로 시청률 올려버리는 거. 그런 걸 잘한단 말이야. 근데 저게 처음부터 나한테 안 오고 손범수랑 틀어지니까 날 찾았어. 나 손범수 정말 싫어하거든. 당연히 싫지. 나보다 잘났으니까. 잘 해보자고. 손범수 새끼 저거 지금 딱 보니까 슬럼프야. 아예 재기를 못하게 슬럼프에 빠져 죽어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뭐? 이 작품이. 늙은 작가의 것이 아니다? 보조로 있던 임진주 작가의 것이었다... 근데? 뭐? 어찌라고? 지금 죄책감 느끼는 거야? 늙은 작가 주제에? 왜 안 뻔뻔해? 늙은 작가 주제에. 정신 차리지? 이게 왜 그 여자 거야? 늙은 작가꺼지. 이거 어디서 썼는데? 여기서 쓴 거잖아? 늙은 작가 밑에 있을 때 쓴 거잖아. 소속 작가로써 쓴 거잖아? 거 되게 와 닿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

“작가님. 왜 착한 척 하고 그래요? 안 착한 사람이. 아 나 착한 거 너무 싫어. 왜냐? 착한 건 다 착한 척인 거니까. 실제로 사람은 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디 악하거든. 착한 놈이 더 나쁜 거야. 거짓이니까. 나 열심히 할게요. 대신 우리 본성 그대로 나쁘게 살아요. 네?”